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며칠 전 영광에서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수은(睡隱) 강항(姜沆)(1567~1618) 선생의 학덕(學德)을 기리고 또 그분의 애국 충절과 높은 기개를 찬양하기 위해서 열린 학회였다. 일본에서 '수은 강항 선생 연구회장'인 무라카미 쓰네키오(村上恒夫) 씨가 참석하고, 국내에선 김덕진·안동고 교수 등이 함께하여 학술 발표와 열린 토론이 전개된 매우 의미 깊은 학술 대회였다. '수은 강항 선생 기념사업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터여서 바쁜 일정을 쫓고 그 학회에 참가한 나는 나름대로는 수은 선생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아는 처지라고 생각해 왔다. 하나, 그곳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일본의 학자들이 그렇게 크고 높

대유(大儒) 강항(姜沆)의 '간양록'

게 수은을 숭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17세기를 대표하는 호남의 학자들은 대부분이 강항의 제자들이거나 그 분과 교유를 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은의 제자들이 이처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보성의 우산 안방준(安邦俊:1573~1654)은 수은과 우계 성혼의 동문생으로 가깝게 지낸 후배였으며, 수은의 제자로 명곡 오희도(吳希道:1584~1624), 거오재양만용(梁燮容:1598~1651), 소은 신천익(愼天翊:1592~1661) 등 17세기의 거물 벼슬아치나 학자들이 모두 수은의 제자로서 학문적 영향을 받아 그 만한 성과를 이룩한 인물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오희도와 양만용은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조선에서 이름을 날린 분들이고 신천익은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의 지위에 오른 거물 관인이었다.

수은이 영광에 살았을 때 안방준은 보성, 오희도는 나주와 창평에서 살았고, 양만용은 광주에서 살았으며, 신천익은 영암에서 살았다. 전라도 전역에 수은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전라도를 넘어 충청도의 파평 윤씨 가문의 학자들이 온통 수은의 제자였음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팔

송 윤황(尹煌:1571~1639)은 우계 성혼의 사위로 미촌 윤선거의 아버지요, 명재 윤증의 조부로 병자호란 때 척화파의 대표적 인물로 국중에 명망이 높던 학자이자 관인이었다. 그가 한때 영광 군수로 재직하면서 장자 윤훈거와 차자 윤순거(尹舜舉:1596~1668) 등을 수은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도록 하여 윤순거는 바로 수은의 수제자가 되었다. 윤순거는 수은의 '간양록'을 간행하면서 친구인 우암 송시열의 서문을 받고, 시남(市南) 유계(兪契)의 발문을 받았으며, 자신이 수은의 '행장'을 저술하여 그의 위대한 삶과 높은 학문 세계를 유감없이 세상에 전해 주었다. 윤순거는 '수은집'(睡隱集)이라는 문집까지 간행하여 수은의 학문적 업적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는 큰 업적을 이룩하기도 했다.

1597년 정유재란에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패하여 고향 영광으로 내려온 수은은 쳐들어오는 왜군을 피하여 배를 타고 가족과 함께 피난하다가 통째로 왜군에게 붙들려 왜군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낸 수은은 우계 성혼 문하에서 성리학까지 익혀 당대의 학자 반열에 올랐었다. 그러나 포로 신세로 왜군에게 갇힌 그는 수

차례 탈출을 시도하고, 자결하려 물에 투신했지만 끝내 죽지 못했고, 단식으로 생을 마치려 했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못했다. 1600년 간난신고를 거치고 마침내 귀국하여 여생을 학문에 힘쓰며 고향에 은거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성리학자 수은이 일본 역류 중 그곳에서 성리학을 일본인들에게 가르쳐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에 주자학이라 성리학을 전파한 일로서 세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본 주자학의 대가인 후지와라 세이카(藤澤樗高:1561~1619)와 아카마쓰 히로미치(赤松廣通:1562~1600) 등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들이 일본의 주자학 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지금 일본의 오주현에는 '홍유 강항 현장비'(鴻儒姜沆講義碑)가 세워져 수은의 업적을 기리고 있고, '수은 강항 연구회'가 조직되어 무라카미 쓰네키오씨가 회장으로 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400년 전에 일본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수은은 '간양록'이라는 특이한 책을 저술하였다. 일본의 내부 사정을 소개한 대단한 책이다. 이제라도 우리측이 수은에 대해 연구하고, 간양록을 읽는 후학들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꿈꾸는 2040



최유진  
위인연구원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무국장

당신에게 10만 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쓰겠는가? 일반적으로 맛 좋은 음식을 사 먹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옷, 신발 등 생활용품을 구매하거나 평소 눈독 들었던 공연 티켓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억 원이 생겼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 꽤 고급 사양의 자동차를 사거나 꿈꾸던 크루즈 해외 여행을 현실로 옮기거나 부동산을 사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에 출간된 마이크 샌벨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경제적 가치 이외에 돈(자본)의 쓰임을 이야기한다. 물질 만능과 경제적 효용성만을 갖도록 삼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만연해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돈의 다른 쓰임, 즉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와 실천적 방법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고 있

사회적 가치를 삽니다

다.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일 평생 노점으로 채소를 팔아 모은 1억 원을 전남대 장학금으로 기부한 어르신 이야기와 언론에 소개됐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선행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서론이 길었지만, '사회적 경제' 역시 돈의 가치 있는 쓰임의 영역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국내에 도입된 지는 꽤 됐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민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이다. 설명 들어 본 사람도 그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왜곡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운영 과제의 한 영역으로써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혹자는 사회적 기업을 '보조금만 지원받는' 먹튀('먹고 튀다'라는 뜻의 속어) 기업'이라고 비난하거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매우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일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님을 인정하지만, 저 평가 이면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매우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기업활동과 소

비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례로 북구 오동동에 소재한 '씨튼장애인지원센터(대표 최은숙)'에 고용된 지적 장애인들은 신체적 특성과 장애 상태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빵을 만든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 자립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 가게인 '파리바게뜨'의 판매성과 기업 규모에 상대할 수는 없겠지만, 팔뚝할 만하게도 작년 말엔 용봉동(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앞)에 '씨튼베 이커리 카페'라는 매장이 열었다. 기업은 빵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 당시의 소비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본금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기업은 전남대 후문에 있는 '지역사회건강지원 그룹 모두(대표 정의석)'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모두'의 기업 정신은 한 개인의 건강성은 공동체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개개인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이들이 건강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가 앞서 과정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광주 청년센터 'the 숲'과 함께 청년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대부분 기업과 공공기관이 '취업률'이라는 양적 수치에 주목하지만 '모두'는 청년에게 내재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진출함으로써 사회가 짊어줘야 할 비용과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SK그룹(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이 이룬 성과(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돈)로 계산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라는 사업을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환경, 보육, 의료, 복지, 빈곤, 인종, 다양성 문제 등 갖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격정인가? 그렇다면 민간과 공적 투자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져야 할 때이다. 당성과당신 이웃의 안녕한 삶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왜 아직도 사회적 가치의 구매를 망설이는가!

社說

대다수 시민 찬성 도시철도 추진 차질 없도록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공론화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광주시가 그동안 공론화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이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은 그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50여 일간의 속의 과정과 집중 토론회를 거쳐 실시된 이날 설문 조사에는 243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78.6%인 191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21.4%(52명)에 그쳤다.

찬성이 압도적 다수로 확인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쪽의 주장을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제시할 권고안을 만들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개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난 2002년 기본 계획 확정 이래 무려 16년 동안이나 건설 여부는 물론 운행 노선, 건설 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반복해 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데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만의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 점도 적지 않은 성과다. 특정 계층과 다수의 힘에 의해 결정되던 지역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 다수의 여론이 찬성으로 집약된 만큼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이 저비용 고효율로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 시민의 진정한 자세다. 광주시도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도시 확장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막판 재협상에 사활을 걸어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노동계가 세부 조항에 막판까지 이견을 내놓았으며, 이를 수렴한 협약서 수정안에 대해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투자 의향서를 냈던 현대차는 그동안 광주시의 중재로 지역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및 민주노총의 강한 압박 속에 지역 노동계가 최종 제시한 방안에 대해 현대차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함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5일까지 현대자동차

와의 투자 협상을 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 노동계와 함께 마련한 투자협약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훈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도 오늘이나 내일 운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 본부 의장 등과 투자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갖고 다시 한 번 지역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는 이번 주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역시 국회 예산 심의까지 협상을 끝내 달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번 주 현대차와의 재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광주 경제의 타개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광주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고

지는 꽃의 사명과 어머니



이동범  
수필가·전 광주교총 회장

결실의 계절인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무성했던 줄기에서 자태를 뽐내며 활짝 피었던 무궁화 꽃들이 여기저기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능소화 역시 생생한 울타리에서 곱게 피었던 꽃들이 지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이법(理法)에 따른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케 한다.

이처럼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은 봄과 여름에 곱게 피었던 꽃들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꽃이 지는 것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다. 너무나 풀들의 생존의 목적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씨앗을 얻는 것이다.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 살아갈 후손을 널리 퍼뜨리는 일이다. 그것이 세상의 숲을 만들고 푸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마치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어

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만의 안일함과 행복이 아니다. 인내와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자손들이 대를 이어 잘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바람이요 행복으로 여긴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여 자손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명란 시인은 "어머니는 시대를 초월한 황토밭에 큰 딱잎이 튼실하게 자라기를 염원하면서 살아가신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당시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자기정성으로 자녀들을 보살피 주시는 존재인 것이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머니가 씨를 뿌려 자손을 번창시키는 원리와 다름이 없는 천륜인 것이다. 꽃이 지는 것은 어머니의 사명과 다를 바가 없다. 꽃이 지지 않고 끝내 자신의 고운 자태만을 뽐내고 있다면 그 식물은 결국 멸종되고 말 것이다. 꽃이 지는 것은 사명이다. 어떤 명예나 찬사에 우월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장 절정에 있을 때 본분을 다한 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꽃은 피어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떨어질 때 더 아름답게 보인다. 떨어

진 꽃을 손에 움켜쥐고 향기를 맡으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 한없이 상념에 잠기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아픔을 겪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높은 곳에 눈길을 두는 명예욕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자 하는 재물욕에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의 탐이 허무하게 누너지고 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하지 않았던가? 화려한 꽃으로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자연의 사계절과 견주어 볼 수 있다. 인생의 봄인 유소년 시절은 연둠빛 새순이 올라오듯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서 세상의 꿈나무로 자라는 시기이다. 청소년 시절은 폭염 속에서 폭풍과 장마에 굴하지 않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뜻뜻한 의지로 실천하는 여름철이다. 장년 시절은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꽃보다 더 소중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철인 것이다.

이때 인생의 가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연에서 배워야 한다. 가을 하늘 빛이 인간의 마음까지 푸르게 만들고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마저 달라지게 한다. 어

느새 고독이 마음의 의자에 앉아 심심한 듯 뒷모를 놓고 꼬드기고 있는 듯 싶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다. 거두어들이는 기쁨과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과 하늘이 내려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언젠가는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인생의 노년기가 찾아온다. 그 때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아껴 쓰고 향기롭게, 더 아름답게 삶을 빛어가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인생이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섭리 속에 오늘도 운행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꽃은 비록 지고 있지만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란 것을 새삼 느끼면서 올바른 삶을 위해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無等鼓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라마구(Jose Saramago)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전염병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눈이 뿌연게 흐려지는 실명(失明)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도시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당국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눈먼 자들을 수용소에 몰아 넣고는 탈출 시인 사살한다는 경고를 한다.

악몽의 상황을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어느 안과 의사의 부인이다. 그녀는 남편과 다

패배에 당 태종은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만들도록 한다. 이에 맞서 양만춘은 지하 토굴을 파서 토산을 붕괴시키는 작전을 펼친다. 당 군대가 진입하는 순간 인부들은 일제히 토굴을 받치고 있는 버팀목을 도끼로 찍는다.

80년 5월 광주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다.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의 눈에는 '거대한 수용소'로 보였을 것 같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와 비극의 역사인 '오월 광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두 도시는

희생과 헌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해 실명인 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잠입한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끼지만, 그녀는 탈출을 돕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한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자칫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차는 실적 악화와 경영 위기라는 명분을 들지만 이면에는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기득권 탓이라는 시각이 많다.

얼마 전 개봉한 '안시성'은 당 태종이 고구려의 안시성을 침공한 사실을 스크린에 담아 화제를 모은 영화다. 거듭되는

이 있었기에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2018년 오늘의 광주는 어떤가. 일자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여전히 안락속이다. 토산이 무너지면 적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끼질을 하던 '안시성' 인부들이 떠오른다. 그들의 헌신이 있어 안시성과 고구려는 살 수 있었다. 물론 무작정 희생을 요구할 수만도 없다. 영화 속 인부들은 죽음을 불사했던 양만춘의 리더십에 감복해 대의를 선택했다. 안타깝게도 '광주형 일자리'에는 희생과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 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여론채부 220-0652   | 기획관 리 국 227-9600          | 업무 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